

石油時評

OPEC總會
이후의
石油情勢

최근의 國際石油情勢는 產油國과 소비국간의 「心理戰爭」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지난 달 27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多數가 6월 1일부터 최저 10%의 減産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OPEC 13개 會員國의 全生産量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減産에 同調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과연 減産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不況과 소비국의 석유절약 및 代替에너지개발의 촉진으로 지금까지 OPEC가 일반적으로 결정, 소비국에 강요해오던 原油價格에도 이와같은 供給완화가 반영되어 價格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同一한 品質의 석유에도 나라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오던 OPEC 강경파국가의 價格政策이 수정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 OPEC는 오래간만에 守勢에 몰리

● 석유절약이나 代替에너지 導入이 進展될수록 석유산업은 過當競爭에 휘말려 經營體質이 弱化되는데 …… ●

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따라서 OPEC의 專斷的인 가격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소비국측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섰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앞으로 產油國과 消費國의 관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OPEC가 總會코뮤니케에서 밝힌 「協調減産」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번의 코뮤니케는 애매하며, 특히 회원국의 「多數」가 減産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나라가 減産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미 OPEC회원국중의 수개국이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중의 最高生産水準에 비해 상당한 減産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는 30%, 아랍-에미레이트연방, 나이지리아, 알제리등은 각각 10% 減産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들 減産實施國이 또다시 6월 1일부터 減産을 강

화하여 最近時点 수준에 대해 10%의 追加減産을 실제로 단행할 수 있느냐의 興否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거의 一定한 생산수준을 유지해온 카타르, 베네수엘라, 리비아, 인도네시아등은 가까운 장래에 10% 減産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産油國이 발표하는 生産量은 第3者が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OPEC 内部에서 확실한 各國別 減産割當과 이에 대한 상호감시에 관해 합의가 없는 한, 各國의 減産発表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국제석유정세가 「心理戰爭」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서 石油輸入國으로서의 産油國의 「粉飾減産」에 놀아 나는 꼴을 범해서는 안되겠다.

OPEC의 協調減産에 있어서 또 한가지 의문은 이란-이라크戰爭 당사국이 減産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양국의 原油生産량(2月 실적)은 이란이 하루 1백40만 배럴, 이라크가 同 70만 배럴로 알려져 있다. 양국이 모

● 실제로 10%의 追加減産을 단행하느냐의 여부가 問題로서, 산유국의 「粉飾減産」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

두 많은 制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생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戰後復興을 위해 각각 2백만 배럴에의 増産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생산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란, 이라크 兩國이 앞으로 점차 생산량을 늘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OPEC 10개국이 一律적으로 10% 減産을 실시한다 해도 그 減産量은 하루 1백20만 배럴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OPEC의 原油 공급량으로서의 現水準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앞으로 OPEC의 石油動向은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니」 사우디石油相은 총회가 끝난 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가까운 장래에 배럴당 32달러로 되어 있는 現價格을 인상할 계획은 없으며, 생산삭감에 관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

고 언명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 제네바總會에서 OPEC가 사실상 분열되었으며, 또 앞으로의 推移에 있어서도 그렇게 간단히 타협하거나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내에서 홀로 고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石油情勢나 아랍의 정치정세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그런 立場을 취하도록 만들었고, 또 사우디 아라비아로서도 현재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한다해도 國益을 손상시키지 않을 자신이 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지난 78년, 세계적인 景氣침체와 석유소비의 감소에 대응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一時的으로 6백50만 배럴까지 減産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와 이번의 경우는 石油을 둘러싼 諸情勢및 사우디·아라비아가 안고 있는 内外要因이 크게 차이가 있다. 첫째로 石油消費國의 結約, 代替에너지 개발의 추진과 非OPEC石油의 増産에 따라 OPEC의 石油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의 減産과 이를 배경으로 한 가적인상은 「石油의 地位」그 자체를 뒤흔들 소지가 많다는 認識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로서도 각국과의 政府間 去來나 아랍코와의 석유판매계약, 또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國內財政需要때문에 쉽사리 減産할 수 없는 「집안事情」이 있다.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政策을 둘러싼복잡한 여러가지 요소가 앞으로의 事態推移중에서 정책전환의 최대變數가 될 것 같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対決, 레바논 정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OPEC總會는 소비국에 「脫石油」努力的의 의의를 가르쳐준 「數育效果」가 있다. 그러나 소비국은 이러한 石油공급 과잉하에서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되었다. 그것은 産業과 一般家計에서 석유절약이나 代替에너지의 도입이 진행되면 될수록 과잉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는 石油産業이 過當競爭에 휘말려 경영체질을 약화시키는 摩擦現象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OPEC총회를 계기로 국내油價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